

WTO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M. Moore, WTO 사무총장

에너지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중요한 투입요소이다. 다른 부문과는 달리 에너지부문에서의 생산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을 개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시장 개혁은 다루기가 아주 어렵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과 에너지가격 변화가 여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에너지투입 요건은 부문별로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하고 에너지가격을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을 철폐하고 조세구조를 바꾸는 것은 환경부문에 상당한 도움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는 에너지의 환경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옵션 중의 하나가 된다.

UN 기후협약(FCCC) 하에서 각국 정부가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공약 이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에너지는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WTO가 아직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유용하게 논의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조금 지급을 시장원리에 따라 제거하는 것은 에너지부문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은 가격과 인센티브 구조가 생산 및 소비의 실제비용과 편익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격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은 에너지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을 확대시키고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원의 확대를 막게 된다. 거기다가 일부 보조금은 낡고 환경적으로 비효율적 기술을 계속 사용케 만든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의 환경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환경비용을 “내재화” 하는 수단으로 환경부담금과 조세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WTO의 주요 기여는 10년전 리우 회의에서 이미 인정된 바와 같이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을 자유화 하는 것이다. 개방적이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WTO는 권한 범위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는 정부가 환경자원의 가격을 올바르게 매기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에너지부문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각 기관들은 필요한 국제적 협력을 하고 있다.

WTO 차원에서 해야할 중요한 기여는 청정생산 기술과 환경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도하 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원”의 결과를 가져와 다자간 무역시스템, 환경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역이 성장의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